

2018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독일	베를린市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시장	123
미국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	124
	뉴욕市	빌 드블라지오(Bill de Blasio) 시장	126
	샌디에이고市	케빈 팔코너(Kevin L. Faulconer) 시장	127
	애틀랜타市	케이샤 란스 보텀스(Keisha Lance Bottoms) 시장	128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아다 콜라우(Ada Colau) 시장	129
영국	런던市	사디크 칸(Sadiq Khan) 시장	130
일본	도쿄都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	130
	요코하마市	하야시 후미코(林文子) 시장	132
중국	상하이市	잉용(应勇) 시장	135
캐나다	토론토市	존 토리(John Tory) 시장	136
프랑스	파리市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137



베를린시

미하엘 뮐러

| Michael Müller 시장

독일 베를린시 미하엘 뮐러시장은 신년사에서 성장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일자리와 교육에 투자하고, 복지혜택과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밝힘. 또한 테러와 폭력에 반대하고 유럽 내의 인종주의·국가주의의 강화에 대항할 것임을 강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와 교육 정책

- 베를린의 전 지역이 갈수록 다양하고 생동적이며 창조적인 분위기로 변화하는 추세
 - 과학과 학문의 중심지이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창업의 소재지로서 전 세계의 사람과 기업이 베를린으로 이주해오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불안의 요소이기도 함
- 베를린시가 이룬 성장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 일자리와 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김
 - 시는 수년간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멘스(Siemens)와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과 같은 대기업의 일자리 축소 위기에 도 직면
 - 시는 좋은 일자리의 보전과 확충을 위해 계속 힘쓸 것
 -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시의 목표이고, 교육은 이를 위한 토대

- 시는 학교 재정비와 신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할 예정
- 유치부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 없는 교육도 지속할 것

복지 혜택

- 저소득층 생활개선 정책은 올해도 꾸준히 추진
 - 지난해 새로운 시정부 출범 이후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의 집세 인상 단속과 사회취약계층용 교통티켓의 가격 인하 정책을 올해도 지속 시행

사회적 투자 확대

- 시는 올해부터 오랜 절감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투자의 해로 돌아섬
- 앞으로 10년간 학교,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임대주택, 안전, 공공일자리에 투자
 - 안전: 경찰을 늘리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 알렉산더 플라츠(Alexander Platz)와 같은 큰 광장에 보안 인력을 대폭 증원
 - 공공일자리: 공무원 인력을 증원해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5천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 계획

유럽 내 정치적 분위기에 대응

-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테러 1주기를 추모하며 테러와 폭력에 맞서 자유를 수호할 것임을 강조
- 동시에 유럽에서 점차 강화되는 인종주의, 국가주의, 배타주의에도 강경히 맞서 자유로운 유럽, 열린 유럽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피력
-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을 기념해 “오직 당신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제시
 - 이 슬로건은 함께 사는 삶의 가치관을 향한 호소

- 인 동시에 초대라고 밝힘
- 베를린시가 현대적이고 사회복지적인 도시이자 독일과 유럽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를 사랑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참고자료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7/pressemitteilung.661676.php>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 Andrew M. Cuomo 주지사

미국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각 도시의 신년사 발표에 앞서 연방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며 일관성을 갖춘 주정부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35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형식으로 웹에 공개

개요

- 정책적으로는 ① 연방정부의 공격적 조세정책에 대처, ② 다각적인 여성정책, ③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퇴치 정책과 진보적인 형사 사법개혁, ④ 테러방지 프로그램, 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주정부의 통합적 선거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을 밝힘
- 경제적으로는 ① 기반시설에 투자, ②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③ 홈리스 없애기, ④ 기후변화 대응, ⑤ 교육기회 확대를 제시

-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 시간당 15 달러(1만 6,000원)까지 인상, 학비 없는 대학(주립·공립대학교), 동성결혼 허용, 유급 가족휴가 도입, 총기안전 대책 마련, 기반시설 확충, 치안 안정, 중산층 세금 저감 등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
- 2018년에는 8가지 주요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 발표

주요 내용: 2018년의 8가지 주요 어젠다

1)뉴욕의 경제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

- 연방정부의 소득세 인상(중산층 소득세를 20%에서 25%로 인상)에 대응
 - 뉴욕주는 미국 전체에서 연방정부에 내는 소득세 비율이 가장 높음을 강조
 - 중산층의 실생활 부담을 줄이고자 2025년까지 소득세를 6.33% 이하로 인하하는 안을 추진
 - 또한, 지방 재산세(보유세 포함)도 지속적으로 세율을 내릴 방침

2)뉴욕의 정책적 공약을 고수

-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
 - 특히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가정폭력, 미디어·개인정보·이미지 등을 도용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인물을 배포하는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연방법과 별개로 뉴욕주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낙태와 무료 응급피임을 주정부 차원에서 허용하는 '통합 피임 보장법'을 시행
- 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범죄 발생일로부터 50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는 법을 통과 시키고자 노력 중

- 지금까지 소송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1년간 일시적으로 소송 기회를 주는 임시정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
 - 여성·소수자 리더십 운영 기업에 법적으로 투자를 지원
 - 정신질환의 확산에 따른 홈리스 증가에 대응
 - 종합적인 홈리스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쉼터와 정신질환자 케어서비스를 확대
 - 이민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신분을 확보할 방안을 정책적으로 지원
 - 특히 외국인 미성년자의 교육, 개발, 구호에 주력
- 3) 모든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 확대**
- 주정부는 ‘생애 첫 1000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생아 보건과 정부지원 출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기반 영유아 보육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
 - 주정부 지원으로 오전 수업 전에 저렴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Breakfast After the Bell)과 양질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Farm to School)도 함께 확대할 방침
 - 고등학교 때 대학 과목을 이수하는 프로그램(Early College High School Program)을 확대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에 학비를 저감하고,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함
 -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컴퓨터 교육도 강화
- 4) 경제적 기회의 확대와 뉴욕주 인력 활용 강화**
-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주립대·시립대의 직업훈련과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고 세금 혜택을 제공
 - 지역경제개발전략 ‘Bottom Up’을 지속
- 주정부의 투자를 받은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6,3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시행
 - 기반시설을 강화
 - 특히 공항철도(AirTrain) 신설로 라과디아(La Guardia) 국제공항의 접근성 향상
 - 뉴욕주 내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내륙항 건설을 추진
- 5) 더 깨끗하고, 건강하며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
- 수질오염과 유해조류 확산에 법적, 기술적으로 대응
 - 중금속 테스트를 강화해 어린이의 중금속 피해를 예방
 - 날로 증가하는 약물중독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
 - 치료·상담·회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은 줄이기로 함
- 6)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확대
 - 과학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50%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30%를 더 줄이는 계획을 수립
 - 극단적인 기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의 ‘기후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NY 회복력’(Resilient NY)계획 수립
- 7) 민주주의의 어젠다 촉진**
- 뉴욕주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도록 관리
 - 선거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에 정치광고를 포함하도록 조치
 - 자동 유권자 등록,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 등을 시행할 예정

8) 더 안전한 뉴욕

- 강력한 사전 테러방지 프로그램을 시행
 - 신속한 신고를 장려하는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캠페인을 시작
 - 주정부가 뉴욕주 모든 학교의 설계도면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

참고자료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utlines-2018-agenda-realizing-promise-progressive-government>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2018-stateofthestatebook.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1.04.18.reL_PROGRESSIVE%20GOVERNMENT_Korean.pdf



뉴욕시

빌 드블라지오

| Bill de Blasio 시장

미국 뉴욕시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도시'(The Fairest Big City in America)를 슬로건으로 삼아 공정성·안전·민중주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신년사를 발표

개요

- 시정 방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공정'을 강조
 - 공정성(fairness), 더 공정한(fairer), 가장 공정한(fairest) 등 공정성 관련 단어를 총 38번 사용
-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금까지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

수립, 영유아 교육,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건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구 온난화 대응정책, 마약·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에 집중

- 여기에 시민참여와 투표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적 도시발전 계획을 추가해 정책 방향을 설정
 - 주정부 신년사에도 언급된 키워드
 - 도시정부가 거대자본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공공자금을 확보하고, 유권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계획

12가지 주요 내용

- 1) 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도시 뉴욕
- 2)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더 안전하게
- 3) 기존 만 4세부터 시행했던 도시정부 지원 무료 보육 프로그램을 만3세부터로 확대시행
- 4)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
 - 10년간 20만 세대 이상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
- 5) 양질의 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창출
 - 기술관련 산업·제조업, 창조·문화산업, 생활과학·보건산업, 미래산업 등
- 6)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저감, 태양에너지 100Mw(메가와트) 활용을 목표로 설정
- 7) 뉴욕시 5개 구(Boroughs)를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 만들기
- 8) 지역기반의 종합 약물중독문제 관리 정책인 '힐링 뉴욕'(HealingNYC) 시작
- 9) '잘되는 뉴욕(ThriveNYC)' 정책으로 도시민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시 차원에서 지원
- 10) 불평등 문제 극복

- 남녀, 젠더, 인종, 직업 등 모든 종류의 불평등 극복을 위한 노력

11)범죄율을 낮춰 리커스 아일랜드(Rickers Island) 교도소를 폐쇄하고 범죄자 처벌과 인권을 개선

12)주택국 주관으로 방치되는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보전

참고자료

<http://www1.nyc.gov/assets/home/downloads/pdf/press-releases/2018/SOTC-2018-Book.pdf>
<https://www.nytimes.com/2018/02/13/nyregion/de-blasio-state-of-the-city-speech.html>
<http://newyork.cbslocal.com/2018/02/13/bill-de-blasio-state-of-the-city>



샌디에이고市

케빈 팔코너

| Kevin L. Faulconer 시장

미국 샌디에이고市 케빈 팔코너 시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캘리포니아州 전체가 직면한 주택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는 ‘Housing First’ 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함. 이에 따라, 홈리스 지원강화, 소형주택 공급 장려, 첫 주택구매자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치안·커뮤니티·도시환경 문제 등도 개선할 계획

홈리스 정책

- 홈리스의 수를 줄이는 동시에 주거 서비스를 제공
 - 범죄율을 낮추고 홈리스 집단에 범죄자가 숨어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도시 공공공간의 안전문

제 해결에 도움

- 3,000명 이상의 국가유공자 홈리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홈리스 대상 주거 서비스
 - 브리지 쉘터(Bridge Shelters): 3개소의 쉘터에 하루 700명의 홈리스를 수용하고, 이들의 주거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한 주차장(Safe Parking Zones): 주택이 없는 가정이 야간에 안전한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
 - 쉘터 침대(Shelter Beds):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대를 제공하는 시설을 확보
- 이외에 다음과 같은 홈리스 서비스를 계획 중
 - 구호 특사(Outreach Ambassadors): 숙련된 전문가들이 유니폼을 입지 않은 채로 직접 홈리스를 찾아가 개인적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 물품 보관센터(Storage Center): 개인 물건이 많은 노숙자가 자신의 물품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센터 운영
 -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Family Reunification Program): 개개인이 가족·친지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연계를 돕는 서비스
 - 홈리스 방지·우회 프로그램(Homeless Prevention and Diversion Program): 홈리스가 될 위협에 처한 사람을 미리 파악하여 도시정부에서 제공하는 하우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홀리스 문제 외의 2018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주택공급 장려와 정책개선
 - 소형주택 공급을 장려
 - 주택건축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주차장 의무 건설 규정을 완화
 - 토지이용 상 직주근접이 될 수 있도록 업무용도와 주거용도를 혼합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세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 치안과 안전 강화
 - 샌디에고시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지만, 경찰력을 강화하고 다른 도시보다 낮은 경찰 임금을 인상해 도시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
- 생활환경 재정비
 - 공공도서관 2개소, 소방서 4개소 추가 설치
 - 공원 13개소를 새로 개장하거나 업그레이드
 - 앞으로 2년 반에 걸쳐 도로를 재정비
- 자연경관과 도시환경 정화
 - 도시 하천, 보도, 도로 등을 주 2회 청소
 - 공공공간의 위생 개선
 - 커뮤니티 단위의 도시정화 및 위생 개선에 참여를 장려

참고자료

<https://www.sandiego.gov/mayor/news/releases/2018stateofthecityfactsheet>



애틀랜타시

케이샤 랜스 보텀스

| Keisha Lance Bottoms 시장

지난해 12월 제60대 애틀랜타 시장으로 당선된 케이샤 랜스 보텀스는 1월 2일 신년 인사에서 경제 발전, 투명성 강화, 공공안전 확보, 교육 개선, 대중교통 확장 등을 포함한 2018년 주요 시정 방향을 발표하고, 취임 후 100일 이내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기로 함

2018년도 주요 시정 방향

- 시민의 경제적 형평성을 가장 주요한 정책적 우선 순위로 강조
 - 애틀랜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0억 달러(1조 800억 원)의 임대주택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
 -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발을 목표로 6,000만 달러(650억 원) 규모의 '신생시장 세액 공제'(New Market Tax Credit)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
 - '여성 기업인 육성계획'(Women's Entrepreneurship Initiative)을 시행해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 자금 지원, 멘토십 등의 서비스 제공
- 윤리적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의 확보
 - 시정부의 신용평가 등급이 가장 높은 'AAA'가 되도록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예정
- 도시의 안전과 치안 강화
- 인종, 종교, 성, 문화 등 도시의 다양성 존중
-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교육 서비스 지원

- 시정부와 공립학교 간의 파트너십, 조기 아동 교육, 직업훈련 교육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
-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과 확장
- 하수도와 수자원 인프라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세제 개편
- ‘깨끗한 도시 계획(Clean City Initiative)’의 확대
로 공공장소의 미적기능을 강화하고 보행친화적 환경을 조성
- 도시환경의 미화를 위한 지역사회 개선 캠페인 ‘Love Our City’를 정기적으로 시행

참고자료

<https://www.atlantaga.gov/home/showdocument?id=33298>

<https://www.atlantaga.gov/Home/Components/News/News/11454/672>



바르셀로나시

아다 콜라우
| Ada Colau 시장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아다 콜라우 시장은 2018년에는 인재를 모으고 투자를 유치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쫓겨나는 이웃이 없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힘

주요 내용

-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기간에 발표한 신년사
- 지난 2월 26일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바르셀로나에서 개막
- 시정부는 이 기간에 전통적인 신년 발표회 자리인 ‘시장의 응답’을 열고 2018년도 계획을 대내외에 공표
- 도시가 지닌 잠재적 혁신능력과 연구역량을 설명하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같은 국제 캠페인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이끌 계획
- “우리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이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바르셀로나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지만, ‘이웃과 지역’은 지켜야 할 더 중요한 가치
 - “부동산 투기가 우리의 이웃을 내쫓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라고 발언
- 동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건물 일체형 정비를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
 - 임대료 인상으로 거주자가 쫓겨나는 과정은 주로 대규모 투자자가 건물 전체를 매입한 후 거주자를 추방하고 건물을 정비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임대인이 건물을 정비할 때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
 - 또한, 임대인은 정비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임차인의 거주지를 확보해줄 의무가 있음
-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도시 협정 체결
 - 콜라우 시장은 지자체 간의 경쟁을 넘어, 임대료 인상 규제에 찬성하는 대규모 도시 협약을 맺을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
 -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다음의 2가지를 제시
 - 현재 법적으로 3년으로 제한된 임대계약 기간의 연장

-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순간 이루어지는 임대료 인상의 규제
- 이 대규모 도시 협약은 스페인 각 지자체에 전달되었으며, 카탈루냐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임대법 개혁을 담당하도록 함

참고자료

<http://ajuntament.barcelona.cat/alcaldesa/es/noticia/una-ciudad-global-que-defienda-a-los-vecinos-y-las-vecinas>



런던市

사디크 칸

| Sadiq Khan 시장

영국 런던市 사디크 칸 시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2017년 발생한 그렌펠타워(Grenfell Tower) 화재와 도심 테러를 언급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발휘된 런던시민의 관용(generosity)과 런던시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용기를 칭찬하고, 런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언급함. 또한 2018년에도 대기환경 · 교통 · 주거안정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

주요 내용

■ 대기환경

- 2017년에 이어 대기오염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
- 전기버스 운행, 대기오염 부담금 제도 시행, 자동차 매연 배출량 규제 등 다방면의 정책 시행

■ 교통

- 시민이 부담 가능한(More affordable)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강조
- 세계적으로 비싼 수준인 런던의 대중교통(버스 · 지하철) 이용요금을 더욱 낮출 예정

■ 주거안정

-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정말로 부담 가능한 주택’(genuinely affordable homes)을 향한 노력이 2018년에는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언급

맺음말

- “2018년은 어느 때보다 단호한 마음으로 모든 런던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https://www.standard.co.uk/news/london/sadiq-khan-hails-incredible-generosity-and-bravery-of-londoners-after-extremely-difficult-2017-a3728901.html>
<http://www.cityam.com/278052/sadiq-khan-applauds-resilience-londoners-new-year-message>



도쿄都

고이케 유리코

| 小池百合子 시장

일본 도쿄都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지난 1월 4일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와 도민 중심의 도쿄 행정 개혁, 도쿄 도청사 직원의 생산성 향상 등을 강조하며 도청사 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새해 인사를 하였음

스포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결의를 다져야 함

- 2018년은 2월에 평창 올림픽, 3월에 패럴림픽, 그리고 6월에는 월드컵이 개막하는 등 세계적인 스포츠의 해
 - 일본은 여름에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100주년 기념대회가 개최
- 이 스포츠 열기를 2019년 럭비 월드컵, 2020년 도쿄 올림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 등 관계기관 간의 연계 강화
- 특히, 2018년은 ‘에도(江戸)’가 ‘도쿄(東京)’로 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 좋은 도쿄의 실현을 목표로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고, 미래 150년을 내다보면서 도쿄를 나날이 발전시킬 결의를 새롭게 해야 함

그림1 도쿄도 고이케 도지사사의 신년 직원인사 모습



‘3개의 도시’ 실현을 확실하게

- 지금까지 ‘세이프 시티, 다이버 시티, 스마트 시티’(Safe City, Diver City, Smart City)라는 3개의 도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올림픽 성공을 위한 각종 준비, 도요스(豊洲)시장 이전 준비, 타마(多磨)·도서(島嶼) 지역의 진

- 흥 정책, 각종 도정 개혁 등 ‘도쿄 대개혁’을 진행
 - 2018년은 이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
- 특히, 2016년에 수립한 ‘2020년을 위한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수립한 여러 정책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2025년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
- 도쿄가 경기 회복, 디플레이션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

행정개혁을 향한 발걸음

- 도쿄도는 2017년에 각 부서로부터 ‘눈에 보이는 개혁’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 개혁을 위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
- 도쿄 행정의 방향성을 도민이 중심이 되는 ‘도민 퍼스트’의 시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더 나은 도쿄 행정을 위한 도전
-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도쿄의 직면 과제를 해결하고, 도쿄의 지속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포함한 부단한 개혁이 필요

생산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

- ‘새로운 도쿄’를 만들기 위해 도쿄도 전 직원이 활발하게 근무하고, 생산성 높은 도쿄도를 만드는 것이 필수불가결
- 2017년 11월에 시행한 ‘도청 활동 개혁’ 선언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방식 개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
- 이를 위하여 먼저, 텔레워크(Telework)가 기반이 되는 페이퍼리스(Paperless)의 실현이 필요
 - 아날로그 시대에서 데이터화로 향하는 도쿄 대개혁을 도쿄도청에서 시작

- 현재 크게 바뀐 결제시스템 개혁 등을 활용해 전년 대비 종이 사용량 20% 감소를 목표로 앞으로 3년간 2020년도까지 추진

■ 캐시리스(Cash-less)

- 이미 메가뱅크 등에서는 인공지능(AI)의 활용으로 수천 명 단위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도되는 등 새로운 조류의 변화를 인정해야 할 때
- 생산성 유지를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
-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현명한 지출’을 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여나 가야 함

성장하는 도쿄도청

- 도쿄도청 직원은 매일 오후 8시 이후에는 무조건 퇴근하는 삶을 실현해야 함
- 일 끝난 후는 재충전하고 스스로를 성장시켜 새로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가야 함
- 도청 직원의 성장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환적인 근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세계로 눈을 돌릴 것을 주문

- 세계를 바라봐야 세계의 움직임을 직시할 수 있음
- 도쿄도청의 사명은 도민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일본 경제동력의 중심인 도쿄의 경쟁력 있는 세계화로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
- 도쿄도의 행정 현장은 물론 전국의 지역과 세계를 바라봐야 함

2018 무술년의 포부

- 2017년 닭의 해는 끝났지만, 도쿄도는 지속적으로

‘새의 눈’으로 시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 속에서 도쿄와 일본의 존재감을 높여야 함

■ 2018년은 개의 해

- 개의 1년 성장은 사람의 7년과 비슷함
- 변화의 스피드가 매우 빠른 현상을 ‘독 이어(Dog Years)’라고 표현
- 격변하는 시대에 속도감을 갖고 도쿄의 밝은 미래를 향해 진력해야 할 것

참고자료

http://www.metro.tokyo.jp/tosei/governor/governor/katsudo/2018/01/04_00.html



요코하마시

하야시 후미코
| 林文子 시장

일본 요코하마시 하야시 후미코 시장은 지난 2월 16일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안 제안을 앞두고 2018년도 시정 운영의 기본 방침과 개요를 아래와 같이 발표

요코하마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중기 계획의 책정

-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내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BSI(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가 2017년 전반기와 비교하여 7.8%포인트 상승
- 이는 리먼 쇼크 직전인 2007년에 기록한 최고치를 웃도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BSI도 크게 개선

- 2016년 시내 관광 소비액은 3,195억 엔(3조 2,300억 원)으로 2011년의 약 1.7배
 - 2017년 개최한 ‘전국 도시 녹화 요코하마 페어’에 600만 명이 방문
- 애플, 시세이도, 무라타 제작소의 연구개발 거점 등 요코하마로의 기업 진출이 계속
 - 가나가와 대학 캠퍼스 유치, 음악홀 신설 등 학술·문화예술 분야도 발전
- 여성·시니어·젊은이 등의 사회 참여도 증가
 - 2015년까지 5년간 30대 후반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6.6%포인트 상승했고, 시의 지원을 활용하여 창업한 여성은 6년간 221명에 달함
-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 힘쓰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요코하마 굿 밸런스상’을 받은 기업이 전년도의 1.6배이자 현재까지 가장 많은 99개로 증가
- 인구 감소의 어려운 시대에 일본 최대의 기초 자치단체로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중기 계획을 제시

강력한 경제성장과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실현

- 요코하마 경제의 회복·성장 궤도를 확립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확충 및 일손부족 대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
- 성숙기에 있는 도시는 문화·예술 도시를 추구
 - 민간을 활용해 새로운 극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활동거점이 되는 구민 문화센터를 3곳 신설
 -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댄스음악 축제, 동아시아 문화 도시 등 요코하마의 거리를 무대로 한 문화·예술사업을 지속 발전
-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세계와 교류가 확대될 기회를 최대한 살려 국제 도시 요코하마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함

- 2018년 ‘DanceDanceDance@YOKOHAMA 2018’을 일본-프랑스 교류 160주년 기념행사로 개최
- 2019년 개최하는 제7회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아프리카에 가장 가까운 도시’를 더욱 어필할 계획
- ‘2019 럭비 월드컵’과 ‘2020 도쿄 올림픽’의 준비도 함께 추진

꽃과 녹음으로 둘러싸인 환경 선진도시 구축

- ‘가든시티 요코하마(ガーデンシティ横浜)’의 추진
 - ‘전국 도시 녹화 요코하마 페어’에서 벚꽃, 장미, 튜립 등 봄꽃으로 거리를 장식해 요코하마의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고 놀라움과 감동을 전달했음
 - 가을에는 ‘야산 가든’을 재공개해 9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함
 - 이 성과를 이어서 ‘가든 시티 요코하마’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하여 2018년 봄에는 ‘가든 목걸이 요코하마 2018’ 행사를 준비
- 친환경 정책을 추진
 - 지금까지 6년간 ‘환경 미래도시’로 환경은 물론 문화·경제·고령화 대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힘을 써온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가 진행하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미래도시’ 선정에 도전할 계획
 - 차세대 교통수단과 수소 에너지의 활용 등을 더욱 추진해 자연공생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할 것

초고령 사회에 도전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간호 요구가 급격히 증가 중

- 2025년까지 고령화 관련 문제 극복을 목표로 재택 의료 연계거점의 조성을 완료하는 등 지역포괄 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
- 2018년도에 특별 양호노인 홈을 기존의 두 배 이상인 약 600개를 조성할 예정
- 신규 개원 직원의 주거임대와 간호로봇 도입을 지원해 간병인력 부족을 해소
- ICT를 활용한 지역 의료 연계 네트워크 구축도 진행

미래를 창조하는 다양한 인재 육성

- 요코하마의 미래를 만드는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
- 어린이집 대기 아동 제로를 목표로 약 3,000명의 어린이집 등원 범위를 조성할 것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시행
- 모자 보건 코디네이터의 배치를 확충하고, 임신기부터의 상담체제를 구축
- 왕따 방지,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생활·학습 지원을 더욱 체계화
 - 장애아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센터에 코디네이터를 시험 배치할 예정

미래를 창조하는 강한 도시 만들기

- 요코하마항은 물류, 관광을 바탕으로 이용 실적이 늘어나는 중
-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의 추진에 힘입어 2017년 4월 북미 항로가 신설되고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조를 기록
-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 터널을 조성하고 일본 최초의 LNG연료 공급 거점의 형성에도 임할 것

- 여객선 기항 수는 과거의 최고치를 훨씬 웃도는 178회를 기록했고, 올해도 이미 200회 넘는 수가 예정
 - 이에 따라, 크루즈 수요에 맞춘 여객선 터미널 조성, 초대형 여객선의 수용을 위한 잠정 CIQ(관세, 출입국, 검역) 시설을 조성할 계획

재정 건전성 유지와 시채 발행

- 시장 취임 이후 일관되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 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음
- ‘미래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추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시채, 안정적 자원 확보, 재정기반 강화 등에 관한 새로운 중기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추구

지속적인 행정 개혁 추진

- 한정된 경영 자원으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재검토를 꾸준히 할 것
- 이미 시청 내부의 경비 재편(초과근무 억제 등), 민영화·위탁화 추진, 외곽단체 재정지원 재검토 등을 시행해 모두 1,176건의 사업에서 116억 엔(1,170억 원)을 절약
- 시청사 이전과 함께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해 요코하마 버전 플렉스 타임(자율출퇴근제)과 텔레워크를 4월부터 모든 부서에서 시행할 예정
-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계획을 책정하고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도모해 효과적·효율적인 시정 운영, 지역과제 해결과 경제활성화에 연결할 것

참고자료

<http://www.city.yokohama.lg.jp/ex/mayor/policy/policyh3002.html>



상하이시

잉용
 | 应勇 시장

중국 상하이시 잉용 시장은 신년사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임대주택·재개발·장기간병 보호제도·보육시설 등 민생 관련 사안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밝힘

2017년의 성과

- 자유무역시험지구와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이라는 양대 국가전략을 전면 추진
 - 자유무역계정을 상하이시 전역의 과학기술 혁신 기업에 제공했고, 중국이 자체 제작한 최초의 대형 여객기인 C919의 시험 비행에 성공
- 제작년 900억 위안(15조 3,000억 원) 감소한 기업세를 500억 위안(8조 5,000억 원)더 감소
- 지난해 128만 명이 가입한 도시외곽지역 사회보험을 도시근로자 사회보험으로 변경
- 공립 의료기관의 의약품 마크업(drug mark up: 리베이트를 의미)을 근절
- 초등학생 대상의 여름방학 자녀돌봄교실 확대, 양로서비스는 접근성 개선
- 중소 하천의 검은 물빛과 악취를 소멸시키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맑은 날이 증가
- 황푸(黄浦) 강변 45km의 공공공간을 개방해 시민이 휴식하기 좋은 공원을 조성

2018년의 정책 방향

- 중국만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아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
- 기술혁신 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시의 수준 높은 발전을 도모해, 도시의 흡인력·창조력·경쟁력을 향상
- 초대형 도시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 시정 운영의 고질적 문제 혁신, 교통혼잡 완화, 쓰레기 처리방침 강화, 하천환경 개선, 생태회랑 조성 등으로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를 건설
-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자
 - 임대주택, 도시 재개발, 주거지 주차문제, 사회양로, 장기간병 보호제도의 시범시행, 유아원과 탁아소, 문화 건강 등 대중의 관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

맺음말

-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개혁개방의 선도자이자 혁신발전의 선행자로서 노력할 것
- “출중한 글로벌 도시를 반드시 건설하여 모두 한마음으로 중국몽(中国梦)의 상하이편을 써나갑시다”

참고자료

http://m.sohu.com/a/213923768_119562



토론토市

존 토리

| John Tory 시장

캐나다 토론토市 존 토리 시장은 2018년 우선과제로 대중교통 시설투자와 서비스 강화, 교통 혼잡 완화,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선정

대중교통 시설투자와 서비스 강화

- 2017년 대중교통 시설투자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주정부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
 - 민공충을 위한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를 2018년 도입 예정
 - 토론토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주변도시와 협력해 버스노선을 잘 연계하는 것이 중요
 - 존 토리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한순간에 향상시킬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투자해야만 함을 강조
-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주요 교차로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교통혼잡 관리 시행
 - 도심 주요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병목현상을 모니터링하고,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
 - 이러한 노력으로 차량이 유발하는 교차로 병목현상을 90% 이상, 보행자가 유발하는 병목현상은 70% 가량 감소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선정
 -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부동산 가격상승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계속 늘릴 예정이며,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중요

흑인 인종차별 교육 강화 지시

- 흑인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34,000명의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강화
 - 근본적으로 인종차별 문화를 바꾸어야 할 것
 - 관리인이나 창구직원이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인종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참고자료

<http://www.cbc.ca/news/canada/toronto/mayor-new-years-message-1.4469243>
<http://www.cbc.ca/news/canada/toronto/mayor-john-tory-year-end-interview-1.4461754>
<https://globalnews.ca/news/3752094/new-measures-traffic-congestion-toronto>
<http://www.cbc.ca/news/canada/toronto/anti-black-racism-staff-wide-training-1.4451330>



파리시

안 이달고

| Anne Hidalgo 시장

프랑스 파리시 안 이달고 시장은 “매일매일 파리에서 탄생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노숙인 보호, 스타트업 활성화, 2024올림픽 유치 등 2017년의 5가지 대표적 성과를 강조하며 2018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밝힘

2017년의 주요 성과 5가지

- 노숙인 보금자리 신설과 흑한기 보호
 - 연대를 실천하는 활동가의 도움으로 노숙인 보금자리 1,000여 개를 신설하여 흑한기에 어려운 노숙인을 잘 보호할 수 있었음
 -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의 요람지로 발돋움
 - 도전정신 가득한 기업·기업가의 노력 덕분
 - 혁신을 위한 유럽수도 대회 수상, 유럽 은행감독원의 본사가 들어올 도시로 선정
 - 스타트업에서 3년간 1만여 개의 일자리가 더 생성
 - 환경을 지키려는 활동가와 시민의 노력으로 자동차 이용률이 4% 감소
 -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
 - 2017년 파리 여행객 수 신기록을 달성
 - 파리가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라는 것과 관광업이 파리의 핵심 경제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
- 2024년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도시로 선정
 - 스포츠 산업 종사자와 모든 파리시민, 그리고 모두의 스포츠 활동 덕택
 -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삶의 질 향상과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이행에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
 - 언급한 성과는 파리시가 거둔 수많은 성과 중 일부에 불과
 - 2018년에도 2017년만큼의 성과를 계속 거두기를 기대

2018년의 비전

- “파리는 지구상에서 진보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뜻이 필력이는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말을 계속 인용할 수 있도록 노력
- “2018년에 저는 모든 팀원과 함께, 파리에서 매일 탄생하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나가는, 미래를 향한 낙관주의적 전망을 굳건히 유지하게 해주는 모든 에너지를 지지하기 위해 한 번 더 노력할 것입니다.”
- 시민과 함께, 파리를 숨낼 수 있는 도시, 우리가 창조해나가는 도시, 혁신을 만들어나가는 도시, 연대의 도시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갈 것
-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미래세계의 열쇠를 청년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의지하고 믿을 것
- 파리시만의 세계시민주의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파리시의 다양성을 꽃 피울 것
- 가장 취약한 이들을 절대 배제하지 않을 것
 - 우리가 실천하는 연대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존엄성의 증거가 될 것

- 파리라는 도시는 공동의 재산
 - 파리에는 세계화 속에서 성공을 거둔 이들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이들,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 모두가 포함
 - 또한 중상위 계층의 시민만이 아닌 가난한 시민의 도시이기도 함
- 파리는 모든 이를 위한 도시로 계속 남아 있을 것
 - 강한 이들뿐 아니라 약한 이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각의 시민에게 자신만의 기회를 제공할 것
 - 노숙자와 난민에게 새로운 사회적 주거지(우리나라의 임대주택과 비슷한 개념)와 구호센터를 제공하고, 이들의 가족이 가장 먼저 유치원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
 - 지금 신년연설을 하는 이 자리가 바로 노숙자와 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 중 한 곳
 - 스포츠 클럽, 극장, 도서관, 영화관 등 파리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가장 약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 것

맺음말

- “파리시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의 크나큰 영광입니다. 파리가 지금의 파리, 역동적이고 매력적이며 따뜻한 파리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2018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자료

<https://www.paris.fr/actualites/anne-hidalgo-presente-ses-voeux-aux-parisiens-2060>